

『흠영(欽英)』에 기록된 감염병의 경험 - 1786년 서울의 홍진(紅疹) 유행을 중심으로 -

김하리*

- I. 홍역의 역사와 유만주(兪晩柱)의 『흠영(欽英)』
- II. 감염병의 시절, 1786년 서울의 봄과 여름
- III. 감염병의 시절에 배운 것

<국문초록>

본고는 감염병의 시대를 사는 오늘날 여기서 감염병의 과거를 살피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유만주(兪晩柱)의 『흠영(欽英)』에 남은 감염병의 기록을 들여다보았으며, 그 중 서울에 홍역이 창궐한 1786년 3월부터 6월까지 유만주와 주변 인물들의 질병 관련 경험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당시에 크게 유행한 홍역은 국왕 정조(正祖)의 장남 문효세자(文孝世子)의 목숨마저 앗아갈 만큼 기세가 대단했다. 이러한 때에 유만주는 자신의 가족, 특히 어린 아우와 자식들을 지켜내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지닌 의료 지식을 총동원하고 전문 의료인을 만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으며 그 결과 홍역으로부터 가족을 지켜내는 데 성공했다. 아울러 유만주의 부유한 친척인 유준주(兪駿柱)와 유산주(兪山柱)도 각자의 지식과 경제력을 기반으로 감염병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다. 반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처지에 놓였던 사람들의 상황은 달랐다. 유만주의 고종사촌 김이중(金履中)은 서울의 사대문 밖에서 극빈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자녀 둘이 감염되었음에도 의원을 만나 약을 처방받을 경제력이 없어 괴로워했다. 또한 유만주의 집에 함께 거주하던 행랑사람의 자녀는 홍역이 창궐한 직후에 감염되어 결국 목숨

* 전주대학교 한문교육과 조교수

을 잃었다. 이 사례는 같은 집에 살고 있어도 신분과 경제력에 따라 감염병을 겪는 양상이 판이하며, 사회적 약자들이 감염병에 더욱 취약함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흙영』에 기록된 감염병의 경험으로 보건대, 감염병 자체는 자연발생적이지만 그에 대한 대응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이다. 같은 감염병을 만나도 그로 인해 받는 고통과 피해는 질병을 겪는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상이함을 이 일기의 기록은 보여 준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감염병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와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1786년, 감염병으로부터 백성을 지키기 위해 국왕 정조가 보인 노력과 그 결실로서 감염병의 종식을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희망을 준다. 정조는 홍역으로 후계자를 잃은 슬픔을 억누르고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국가 의료 시스템의 적극적 운영을 독려했으며, 세자의 치료에 실패한 의원을 처벌하라는 공소한 담론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해민서와 활인서의 담당자를 독려해 백성의 구호에 집중하도록 했다. 결국 정조의 조정에서는 1786년 6월 29일, 홍역의 종식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핵심어 : 감염병, 홍역, 『흙영』, 유만주, 일기

1. 홍역의 역사와 유만주(兪晩柱)의 『흙영(欽英)』

홍역은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이다. 백신 접종이 보편화된 데다 한 번 걸리고 나면 평생 면역을 얻기에, 지금 그리 대단해 보이는 질병은 아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와 같은 비유적 표현에 이 질병의 심각성이 흔적으로 남아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지난 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사정이 꽤 달랐다. 1935년생 평론가 유중호는 과거 어린 자식을 둔 부모에게 특히 공포의 대상이었던 홍역의 형상과 무게를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그에 따르면 감기 비슷하게 고열과 기침을 동반하는 증상으로 시작되는 홍역의 가장 뚜렷한 표지는 ‘꽃’이다. ‘꽃’이란 병증이 진행되며 얼굴에 빨간 좁쌀처럼 돌아온 몸으로 퍼지는 열꽃을 가리키는 말로서, 달리 표현해 ‘발반(發斑)’이라고 한다. 1935년 발표한 시에서 “어

느 마을에서는 홍역이 척촉(躑躅: 철쭉)처럼 난만하다”고 읊은 정지용도, ‘꽃’이 난만한 어린것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깊은 불안과 공포와 슬픔을 경험한 세대다. 홍역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폐렴이 되기 쉬웠고, 주로 어린이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질병이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항생제가 보급되기 이전까지의 한반도에서 홍역은 치명적인 병으로 공포의 대상이었다.¹⁾

이 글에서는 유만주(俞晩柱, 1755~1788)의 일기 『흙영(欽英)』을 바탕으로 18세기 후반 서울의 홍역 유행(輪行)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 남촌에 거주한 사인(士人) 유만주는 서른 살 무렵 인생에서 가장 상쾌한 일로 몸에 병이 하나도 없는 것을 꼽았다.²⁾ 불행히도 그의 가계 구성원들은 가족력(家族歷)이 의심될 정도로 심각한 질병을 겪었다. 34세에 사망한 유만주를 포함해, 그의 조부 유언일(俞彦鎰, 1697~1747)과 백부(伯父) 유한병(俞漢邴, 1722~1748), 전처 해주 오씨(海州吳氏, 1752~1773), 그리고 장남 유구환(俞久煥, 1773~1787)이 질병으로 이른 죽음을 맞았으며, 부친 유한준(俞漢雋, 1732~1811), 모친 순흥 안씨(順興安氏, 1734~1821), 백모(伯母) 청주 한씨(淸州韓氏, 1721~1809) 등 모든 가족 구성원이 『흙영』에 기록된 13년의 시간 동안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병증과 그에 대한 의료행위를 경험했다. 이에 유만주의 『흙영』은 아픈 가족을 돌보는 일을 전담하며 그리 튼튼하지 못한 몸을 지탱해 나간 그의 생애가 반영되어, 대단히 상세한 시병일지(侍病日誌)이자 보살핌의 일기, 그리고 투병기록의 면모를 보인다.

특히 『흙영』은 1775년과 1786년 두 차례 서울을 휩쓴 홍역의 시절을 포괄하고 있어 조선후기 감염병의 역사를 파악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이 글에서는 1786년 3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을 특정하여 이 일기에 남은 질병의 경험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때는 서울에 홍역이 광범위하게 유행하여 많은 희생자를 낸바, 한국 감염병의 역사에서 주목할 만한 시기 중 하나이다.³⁾

- 1) 유종호, 『시와 열쇠말-홍역과 꽃』, 『시와 말과 사회사』, 서경시학, 2009, 19~24면. 정지용의 시 『홍역』에 대한 평론인 이 글은 1935년을 전후한 서울에서 홍역이 불러일으켰던 공포와 불안의 정서를 잘 포착, 재현하고 있어 본고의 논의에 좋은 참조가 된다.
- 2) ○或問人生第一部快事, 曰身外無一病也, 問其次曰身外無一事也.(1784.6.12)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내용이 『흙영』 1784년 6월 12일조에 실려 있음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 3) 박훈평, 『조선, 홍역을 앓다-조선후기 홍역치료의 역사』, 민속원, 2018; 송지청 외, 『조선 홍역발생과 관련 의서 편찬관계 고찰-18, 19세기를 중심으로』, 『한국의사학회지』 제31권 제2호, 한국의사학회, 2018.

II. 감염병의 시절, 1786년 서울의 봄과 여름

1. 병오년(丙午年)의 홍역과 감염병의 소문

인생의 목표였던 과거(科擧)에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한 해가 저물고, 유만주는 병오년(1786) 새해를 우울하게 맞이했다.⁴⁾ 을미년(1775) 설날에 시작한 일기는 이제 12년차에 접어들었다. 일기를 처음 쓰던 해 21세의 유만주는 첫아들 유구환과 둘이서 홍역을 겪었다. 고열과 두통에 시달리면서도 아들의 발반을 우선 걱정하고 살폈던 을미년 여름의 기억은⁵⁾ ‘홍역을 치른다’는 말의 의미를 절감케 하는 것이었다.

12년 사이 아들 구환은 14세 소년으로 자랐고, 갑아와 진아 두 딸이 태어나 여섯 살과 세 살이 되었다. 세 남매의 아버지가 된 유만주는 스무 살 때와 다름없이 거자(擧子)의 처지였는데, 이 점이 32세의 그를 종종 낙담하게 했다. 그가 연초부터 우울증과 불면증에 휩싸여 ‘해가 떠서 다시 살아야 하는 것이 괴롭다’고 탄식을 거듭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처지였을 터이다.⁶⁾ 게다가 그는 이 시기에 빈발한 현기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종종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⁷⁾ 이처럼 그는 감염병의 유행 상황에 대응하기에 충분히 건강한 몸과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였지만 다음 일기에서와 같이 여러 모로 자존감이 낮아진 자신을 격려하려는 노력은 지속하고 있었다.

마음의 땅은 대지보다 크다. 이지러진 대지에서는 그래도 무언가 할 수 있지

4) 유만주는 1786년 1월 14일의 일기에서 “科宦二字，爲驅人之嘔啞，束世之資斧矣”(과환이라는 두 글자가 사람을 몰아가는 재갈이 되고 세상을 구속하는 자본이 된다)라고 하여 과거 시험에 얽매인 처지를 비판했다.

5) 1775년 여름 유만주가 치른 홍역에 대해서는 유만주, 김하라 편역, 『일기를 쓰다』 1(돌베개, 2021), 275~279면 참조.

6) 1786년 1월 23일조의 “苦日出事遷生也，惜過脩夜難得無晨”(해가 떠서 다시 살아야 하는 것이 괴롭고, 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안타깝다)과 같은 구절이 참조된다.

7) 忽氣眩，由於虛而不調。卽飲汚露少許，還下臥定。邀醫趙未果遇，既午餽紅棗飲。(1786.3.17.) “갑자기 현기증이 났는데 기가 허하고 조섭을 잘 못해서다. 곧장 면천(沔川)의 술을 약간 마시고 돌아 내려가 누워 안정을 취했다. 조 의원을 불렀으나 만나지 못했다. 한낮이 다 되어 대추 미음을 먹었다.”

만, 마음의 땅이 이지러져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대지라는 관점에서 이 한 귀퉁이를 본다면 작은 곳이었고, 만물이라는 관점에서 나 자신을 본다면 미미한 존재일 터이다. 나는 잠깐 존재하는 ‘나’이다. 예로부터 성인과 지혜로운 이들, 그리고 영웅들은 세상을 다스리거나 세상으로부터 훌쩍 초탈하는 사람으로서 길이 존재하는 ‘나’가 되었다. ‘나’는 그저 일개의 존재가 아니다. 일개의 ‘나’에 그친다면 현재는 공허한 것이다.⁸⁾(1786.2.20)

이처럼 그는 마음 같지 않은 세계를 ‘이지러진 대지’로 간주하고 있지만, 그래도 마음의 영토를 온전히 지킴으로써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자 했다. 스스로의 초라한 몸과 마음을 돌아보며 쓴 이 일기에서는 ‘나’의 마음을 가누며 일상을 온전히 유지하고 삶의 공허함을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태도가 감지된다.

그러나 병오년 봄은 감염병의 소식으로 더 어둡게 물들었다. 당시 서울을 휩쓴 홍역에 대한 유만주의 최초 언급은 다음과 같다.

들으니 홍진(紅疹)이 동리 안에 유행(輪行)하고 있다 한다.⁹⁾(1786.3.12)

‘홍진’이란 피부에 마진(麻疹) 모양의 발진이 돋은 것으로, 과거에 홍역을 가리켜 쓰던 말이다. 조정에서 당시 홍역의 심각성과 관련한 언급을 시작하기¹⁰⁾ 한 달 전에 유만주가 포착하여 적은 이 감염병의 소식이 어린 자녀들을 둔 아버지인 그에게 상당한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었음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홍홍한 소식은 이어졌다. 나흘 뒤 유만주는 홍역 외 다른 감염병들도 바야흐로 유행 중이라는 정보를 얻어 다음과 같이 적었다.

밤에 들으니 몹시 위험하고 모진 5종의 질병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한다. 5종이

8) ○心之地大于大地。大地之缺猶可爲也，心地之缺不可爲也。○以大地觀一隅則小，以萬物觀一己則微。我是暫有之我也，從古聖智英雄經世出世之人，是長有之我也。我未嘗止有一，止有一我則見在虛空。(1786.2.20)

9) 聞紅疹輪行于洞中。(1786.3.12)

10) 『조선왕조실록』 1786년 4월 10일조에 진두(疹痘: 홍역)가 심하게 유행하여 여제(厲祭)를 지내도록 했다는 기사가 보인다. 이것이 1786년의 홍역과 관련된 조정의 최초 언급이다.

란 두(痘)와 홍진(紅疹), 당진(唐疹) 및 시기(時氣)와 소증(掃症)이다.¹¹⁾(1786.3.16)

이 5종 가운데 ‘소증’을 제외한 4종의 질병은 모두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감염병인데,¹²⁾ 그 중 ‘두’란 마마, 즉 천연두이고, ‘홍진’은 앞서 말한 홍역이다. ‘당진’은 홍역과 증세가 유사한 질병인데,¹³⁾ 아마도 중국을 발원지로 하기에 이렇게 일컬었던 듯하다. ‘시기’란 ‘시령병’(時令病)이라고도 하는데 때에 따라 유행하는 전염성 질환을 가리킨다.

한편 ‘소증’은 대단히 급속히 진행되며 치사율이 높은 모종의 돌림병으로 추정되는데, 다음의 전문이 참조된다.

죽리(竹里)에 근래 혼인을 치른 집이 있었다. 혼례식 자리를 차려 놓고 신랑을 기다리는데, 날이 저물도록 아무 소식이 없자 괴이하게 여겨 급히 달려갔다. 그런데 상황을 알아보러 간 사람이 도착하기도 전에 신랑의 부고가 이르렀다. 대개 지금 들고 있는 소증(掃症)으로 폭사(暴死)한 것이다.¹⁴⁾(1786.4.12)

아무 조짐도 보이지 않았는데 갑작스레 신랑의 부고를 받게 된 신부는 혼례식도 하지 못한 채 통곡하며 시댁으로 달려가 남편을 위한 상복을 입고 곡을 하고 양자를 두는 절차를 논의한 후 남편의 빈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¹⁵⁾ 죽리는 서울 중구 을지로 2가와 저동 2가에 걸쳐 있던 마을로서 유만주가 살던 창동(倉洞: 중구 남창동)과 인접한 곳이었다. 이에 감염병과 그에 따른 끔찍한 비극이 육박해 오고 있다는 감각은, 유만주의 불안과 공포를 더욱 가중시켰을 것이다.

이와 같은 감염병의 징후와 소문은, 시작한 지 석 달 된 병오년에 대한

11) ○夜聞方行五種之疾甚危惡云。五種者，痘與紅、唐二疹及時掃也。(1786.3.16)

12) 4종의 질병이 바이러스성 질환이라는 점은 서울 관악구 낙성대동 김현주환의원의 김현주 원장께 문의해 알게 된 것임을 밝혀 둔다. 기존의 의서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소증’에 대해서는 후고를 요한다.

13) 『조선왕조실록』 1736년 4월 12일조의 “넋째 웅주가 홍역을 앓다가 죽다”라는 기사에 ‘唐疹’이라는 말이 보인다.

14) 聞竹里近有做婚家，肆設香筵以待郎，至日曠無聲，怪之急走斷，探人未及，而以郎訃至。蓋暴死于今之輪行掃症也。(1786.4.12)

15) 郎家送推書幣，新婦堅不與斷，發哀馳赴舅家，哭成夫服，請于夫兄弟取其幼子爲嗣。於是，利短刀懷之，入訣夫殯，死于其旁，方爲所未見聞之異事云。(1786.4.12)

비극적 전망으로 이어졌다.

혹자가 요즘 의원들의 말이라며 전하길, 병년(丙年)은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불길한 해인데, 하물며 금년은 병화(丙火)와 오화(午火)가 엇갈리며 타오르는 격이니 한여름이 지난 후에 사람이 많이 죽게 될 거라고 한다.¹⁶⁾(1786.3.18)

유만주가 거래하는 약국의 주인에게 들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 말은, 질병의 원인과 진행에 대해 시운(時運)과 연관지어 파악하는 당시 의료인들의 사고방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1786년에 해당하는 간지인 ‘丙’은 본디 조선 사람에게 매우 불길한 해인데, 유만주는 이 말에서 아마도 병자호란(丙子胡亂)이나 을병대기근(乙丙大饑饉) 같이 비참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과거의 ‘병년’을 떠올렸을 터이다. 게다가 1786년은 각각 불(火)의 의미와 밀접히 관련된 ‘丙’과 ‘午’가 겹친 해로서, 뜨거운 여름을 건디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리라는 의료인들의 전망은 감염병의 소문에 휩싸인 당시의 서울 사람들을 충분히 압도하였을 듯하다. 이처럼 암울한 전망과 불안 가운데 유만주는, 이어지는 소문에 귀를 기울이며 이 어려운 시절을 통과하게 된다.

2. 유만주 일가가 겪은 감염병의 시절

① 1786년 봄을 즈음한 유만주 가족의 상황 및 당시 왕래한 의료인들

소문에 따르면 1786년의 홍역은 4, 50대는 물론 7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감염 사례를 보였다.¹⁷⁾ 그러나 32세의 가장 유만주가 홍역과 관련하여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상은 홍역을 치른 적이 없는 집안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일 것이며, 이런 점에서 그의 세 자녀인 유구환(1773년생, 14세), 유갑아(1781년생, 6세), 유진아(1784년생, 3세)의 상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유구환은 가족 중 가장 병약하여 늘 걱정을 자아내는 소년이었지만,

16) 或傳時醫之言，丙年在東國自古爲不吉之歲。況今年則丙火午火交互熾烈，盛夏之後人當多死云。(1786.3.18)

17) 聞年四五十者多死于疹。(1786.5.3); 聞七十二歲老婦人方有始疹者云。(1786.5.7)

그는 이미 홍역과 천연두를 순탄히 치렀다는 점에서 일단은 안심을 해도 괜찮은 상황이었다. 이에 앞선 을미년(1775) 서울에 홍역이 창궐했을 때¹⁸⁾ 당시 21세의 유만주와 3세의 유구환이 차례로 감염되었으나 이 부자는 무사히 홍역을 이겨냈던 것이다.¹⁹⁾ 따라서 유만주는 어린 두 딸인 유갑아와 유진아를 주로 보살피면 되는 처지였다.

그런데 유만주는 이에 더해 조금 특별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아버지 유한준이 달포 전에 양자를 들인 일이 그것이다. 유한준에게는 본디 10살 연상의 형 유한병이 있었으나 그는 28세에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났고, 이후 유한준은 자신의 맏아들 유만주를 형의 양자로 입적했다. 실제로는 유한준 부부가 친아들을 슬하에 두고 유한병의 아내 청주 한씨를 한집에서 부양하며 살아가는 상황이었지만 유만주의 친동생인 6세의 유면주(兪冕柱)가 1764년 천연두로 사망한 이래,²⁰⁾ 유한준에게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명목상으로는 후사가 없었다. 그런 까닭에 유한준은 1786년 2월, 서대문 근처 냉동(冷洞)에 거주하는 족형(族兄) 유한웅(兪漢膺)의 다섯 아들 중 막내인 유환주(兪皖柱)를 양자로 들이게 됐다. 졸지에 아들보다 어린 아우를 얻게 된 유만주에게, 여섯 살, 세 살의 딸들과 더불어 아홉 살 남동생을 홍역으로부터 보호하는 중대한 임무가 맡겨진 것이다.

일찍이 유만주는 ‘오신’(五神)이라 하여 조선 사대부에게 필요한 다섯 가지 여기(餘技)에 대해 말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궁술(弓術)과 관상술(觀相術), 의술(醫術) 및 음주 능력과 교우 능력이다.²¹⁾ 이 중 의술은 가족의 건강을

18) 1775년 당시 14세로 서울에 거주하던 정약용(丁若鏞)도 홍역으로 위중했으나 우연히 서울을 방문한 의원 이현길의 진료를 받아 완치되었다. 정약용은 이현길 덕택에 목숨을 구한 것을 감사하며 그를 입전하여 『몽수전』을 지은 바 있다.

19) 유만주는 1775년 6월 7일에 홍진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6월 11일에 거의 나았으나 6월 20일까지 후유증으로 설사 증세가 있었다. 유구환은 6월 23일부터 증세가 시작되었고, 7월 1일에야 발반이 사그라들어 회복의 기미를 보였다. 유만주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 “홍진이 지금 크게 번지고 있어 위독하다는 소식이 잇달아 들려온다”(1775.6.29), “홍진에 감염된 환자가 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1775.7.1), “홍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발반이 사그라들고 나서 한 식경 만에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1775.7.7)고 적고 있다.

20) 兪漢雋, 『幼子冕柱癘誌』, 『自著』卷24.

21) ○國朝有五神, 青海 壯節神於射, 玄軒 東淮神於相, 老峰 文谷神於飲, 舟村 淸城神於醫, 漢陰 白沙神於交.(1781.5.15) “우리나라에는 五神이 있다. 이지란과 신승겸은 활쏘기의 신이고, 신흠과 신익성은 관상의 신이며, 민정중과 김수항은 음주의 신이고, 신만과 김석주는 의술의 신이며, 이덕형과 이항복은 교우의 신이다.”

책임지고 돌봐야 하는 가부장에게 필요한 능력 중 하나였고, 당시 사대부 중에는 의원 이상으로 의학에 밝은 이들이 많았다. 유만주 역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부모와 처자식의 건강을 책임지고 돌보는 처지에 있었으므로 『동의보감』 등의 의서를 읽고 여러 민간요법을 수집하며 상당한 의료지식을 쌓아 가던 터였다. 이는 그가 의원에 대해 전적으로 믿고 따르기보다는 평가하는 입장에서 제한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하는 한 가지 이유가 되었다.

또한 그는 기본적으로 의원이나 약이 죽을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²²⁾ 의원이란 반인(洋人: 성균관에 딸려 쇠고기 장사나 전통 연회에 종사하던 천민)과 마찬가지로 물질적 대가의 다소에 따라 역량을 발휘하는 근친스러운 직업인이라는 인식도 갖고 있었다.²³⁾

따라서 유명한 의원이라 할지라도 모든 경우에 다 유능하지는 않으며, 어느 집안에서 오래 주치의로 활동하거나 하여 그 집안 사람들의 기질과 질병에 대해 잘 알아서 효험을 드러낼 뿐이라는 등 보편적인 명의를 없애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다.²⁴⁾ 그가 만나 본 의원 중에는 정약용이 『몽수전』을 통해 기린 이헌길(李憲吉)²⁵⁾이나 내의원에 소속된 의원들처럼²⁶⁾ 명의로 일컬어질 법한 이들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유만주는 그들의 처방을 꼼꼼히 기록할 뿐 그들이 유명세에 부합하는 의술을 갖고 있다고 여기지는 않은 듯하다. 요컨대 의원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은 것인데, 이는 그리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다 이른 나이에 병사한 자신과 아들 구환의 생애의 조건

22) ○病不能殺人, 藥不能生人, 醫不能救人, 惟福能祛人, 命能殺人, 數能生人.(1785.5.26)

23) ○醫者語必及人之厚資醫者, 洋人語必及人之厚資洋人. 非醫非洋而襲此陋套, 則更何問哉.(1782.7.5)

24) 最不可的知者, 醫也. 其爲術精粗生熟, 固當一定, 而今乃有庸於此而良於彼, 此家曰: ‘是醫也, 庸醫也’, 卽彼家曰: ‘是醫也. 扁, 華也’. 及徵其用藥治病之事, 一一神異, 幾無遠於扁, 華, 是誠何術哉? 或言: 凡此斷, 醫皆有一副所熟之家, 家人之男女老少性情氣稟, 恒所稔知, 故有以得其彷彿, 對症投藥, 多獲其效. 是固理似然耳.(1784.11.12.) 인용문의 작게 쓴 ‘斷’은 끊어 읽으라는 표시로서 저본에도 작게 표기되어 있다. 이하 같다.

25) ○家大人見湖醫李憲吉, 出和血調中湯.(1782.6.11) 유만주가 ‘湖醫’라 지칭한 이헌길은 정약용의 『蒙叟傳』(『與猶堂全書』文集 卷17)에 언급된 李獻吉(1738~1784)과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호가 ‘蒙叟’인 이헌길은 1775년 서울에 우연히 왔다가 홍역이 창궐한 것을 보고 喪中임에도 불구하고 의술을 펼친 인물이나, 원래 지방에서 활동하던 의원으로 판단되며 이 점이 ‘호의’라는 칭호와 호응한다.

26) 『흠영』에 등장한 오도형(吳道洞, 1720~?), 강명길(姜命吉, 1737~1800), 이행눌(李行訥, 1740~?)은 내의원에 소속되어 활동한 의원으로 확인된다. 이들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박훈평, 『조선의인지』(한국학술정보, 2012) 참조.

이 반영된 태도일 수도 있다.

한편 1786년의 홍역을 겪으며 유만주는 유례없이 잦은 빈도로 의원을 찾아 다니게 되는데, 이는 1775년에 자신과 아들 유구환이 홍역을 치를 때와도 상당히 다른 모습이라 눈길을 끈다. 유만주가 이처럼 이례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친부모로부터 분리되어 낯선 집에 온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무력한 남아 어린이인 유환주를 홍역이라는 감염병으로부터 지키고 새로운 가족으로 안착 시키고자 하는 책임감 때문이었다.

홍역이 유행한 1786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유만주는 의원과 약국 등의 전문 의료인들을 하루에도 두어 차례씩 만나며 유환주와 두 딸의 홍역에 대처하느라 분주한 행보를 보였다. 당시 그가 접촉한 의료인은 장 의원[醫張], 조 의원[醫趙], 우 의원[醫禹] 등의 의원과 약국 임씨[藥林] 및 명 약국[明局] 등 약국으로 대별될 수 있다.

장 의원은 『흥영』에서 이름이 ‘장덕해’(張德海)라고 밝혀져 있다. 남대문 근처에 거주하던 이 의원은, 1781년 원인 모를 병으로 피를 토하며 사경을 헤매던 20세의 정약용을 완치시킨 의원과 동일인이다.²⁷⁾ 유만주는 애초에 부인병을 잘 보는 의원으로 장덕해를 소개받았으며,²⁸⁾ “맥(脈)을 잘 알고 침을 잘 알며 생사(生死)를 잘 알고 고방(古方: 옛날식 처방)에 얽매이지 않으며 가난한 이를 구휼하고 부유한 이를 한مان히 여긴다니 이와 같다면 편작이나 화타라 하겠다”²⁹⁾라며 그의 명성에 대해 언급했다. 유만주는 1784년 7월부터 장덕해를 방문하여 어머니의 병환에 대해 문의하고 처방을 받아 왔었고, 그와의 신뢰관계가 성립되고 난 1786년에는 자신의 지병인 치질 고민까지 털어놓게 된다. 이 때 장덕해는 환부에 드렁허리를 붙이라는 처방을 내렸다.³⁰⁾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조 의원은 유만주의 동리에서 멀지 않은 수서(水西: 남대문로 2가)에 거주했다. 유만주는 1783년 6월부터 그를 가끔 방문하

27) 정약용은 1781년에 쓴 시 『冬日乘舟到漢陰, 得病入京』에서 병으로 각혈을 하여 의원을 찾아 서우로 갔다고 밝혔고, 이어지는 시 『鯉煙篇贈張生』에서 장덕해가 처방한 약 한 첩을 먹고 나왔다고 하며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했다.

28) ○議辨麗金臘丸七顆, 試訪婦人醫, 或薦儒醫張德海.(1784.6.13)

29) ○朝尋隣洪, 要見醫張未果, 週聞其能知脈, 能知鍼, 能知死知生, 能不泥于古方, 能恤貧而漫富, 若是則眞扁, 華矣.(1784.7.7)

30) 의원 장덕해에 대해서는 유만주, 김하라 편역, 『치질 의원 장 씨』(『일기를 쓰다』 2, 돌베개, 2021, 102~103면) 참조.

여 아들 구환의 병에 대해 논의했다. 조 의원은 유만주 집안과 가장 지속적으로 왕래한 의원에 해당하며, 유만주는 부모상이나 낙마 사고 등 조 의원의 개인사까지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³¹⁾

다음으로 역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우 의원이 있다. 유만주는 1786년 5월 서대문 반지(盤池) 근처에 거주하는 종형제 유완주(兪完柱)를 문병하러 갔다가 인근에서 영업하는 우 의원의 소문을 들었다. 그에 따르면 우 의원은 출산, 천연두, 홍진 등 세 분야에서 귀신 같은 의술을 발휘한다고 명성이 있었다. 우 의원은 세 번 찾아가 한 번 보기 어려울 정도로 바쁜 몸이었지만 유만주는 한동안 부지런히 그를 찾아가다. 아이들을 홍역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당면 과제가 절실했던 탓이다.

유만주는 이 세 의원 중 장덕해 및 조 의원과는 예전부터 왕래가 있었으나, 우 의원과는 1786년 5월에만 일시적으로 왕래했다. 유만주는 홍진이 치성하는 기간 동안 기준에 알던 의원들과 당시 유명세를 타던 의원까지 두루 찾아가 진료를 받게 된다.

의원의 진료를 받은 다음에는 그 처방에 따라 약을 조제해야 했다. 이 일을 맡아 유만주를 도왔던 이들이 약국 임씨와 명 약국이었다. 먼저 약국 임씨[藥林]는 임 약국[林局]이라 부르기도 했는데, 유만주의 창동 집 근방에 거주하며, 주로 고객의 집을 방문하여 약을 조제하는 방식으로 일했다. 유만주는 약국 임씨를 집에 불러 함께 약을 조제하며 인정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그는 중인(中人)의 입장에서 양반 사대부를 비판적으로 보는 솔직한 심정을 토로한 적이 있다.³²⁾ 명 약국[明局]은 명동(明洞)에 위치하고 있기에 이렇게 불렸다. 유만주는 어머니의 병증에 대해 장 의원이 처방한 대료반하탕(大料半夏湯) 방문(方文)을 명동 약국에 가져가 보여주고 정갈하게 잘 볶아서 지어 달라고 별도로 부탁하는 식으로 일을 진행했다.³³⁾ 이와 같이 의원과 약국을 연동하여 이용하는 방식은 홍역이 치

31) ○朝于洞邀醫趙示辰及皖. 皖出香沙平胃散.(1786.4.5)

32) 부유한 중인층 인사가 가난한 사대부를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훗날 보답을 받으려는 경우가 왕왕 있으나 사대부들은 이들을 이용해 출세하고 나면 모른 척 할 뿐이고, 이에 중인들은 '사대부란 도적놈들'이라고 부르짖고 만다는 등의 이야기가 『흠영』 1786년 6월 12일조에 보인다. 유만주 저, 김하라 편역, 『염라대왕 선정비』(앞의 책, 50~51면) 참조.

33) ○書示大料之方于明局, 另要精細炒製.(1786.4.27) 이처럼 유만주가 장 의원과 명 약국을 이용하는 방식을 통해 의약분업이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던 당시의 의료상황을 확인할 수 있기

성하던 기간 동안에도 다름이 없음을 볼 수 있다.

② 유만주 일가가 겪은 홍역

처음 동리에 감염병이 돌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유만주는 평소 교류가 잦던 친척 유한지(俞漢芝, 1760~1834)에게 편지를 써 홍역을 치렀는지 물어 보았다.³⁴⁾ 아저씨뻘이기는 하나 아직 20대 중반의 청년인 만큼 유한지도 감염원이 될 수 있었기에, 그 점을 미리 확인해 차단하고자 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그는 영남의 한 선비가 썼다는 홍진 치료 처방을 구해서 임시로 손질해 두었다.³⁵⁾ 또한 근래의 사람들이 홍역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약인 태을신명단(太乙神明丹)에 대한 정보도 알아 두었다.³⁶⁾ 의료인들의 본격적인 도움을 받기 이전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준비해 두려는 태도를 볼 수 있다.

‘홍진이 동리에 돌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지 한 달만인 4월 13일에 유만주의 집 행랑에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³⁷⁾ 행랑은 경제적 약자의 거주 공간으로, 그 거주자는 ‘행랑것’이라는 비하의 대상이 되는 것이 관례적이었다. 이처럼 같은 담장 안에 살고 있어도, 신분이 낮고 가난한 사람은 질병에 더욱 취약했다.

불안한 4월이 지나고 5월이 되었다. 그리고 5월 4일 오후 늦게 환주에게 홍역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³⁸⁾ 그 전날인 5월 3일 유만주는 서대문 밖에 거주하는 우 의원에 대한 정보를 접했는데, 그에 따르면 우 씨는 특히 홍진을 귀신 같이 치료하는 의원으로, 홍진 환자가 그에게 진료와 처방을 받아 그리 비싸지 않은 석고(石膏) 등의 약재를 사흘만 쓰면 죽을 사람도 살아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는 얼마 전 의빈 성씨가 홍진을 앓을 때 명을 받고 대궐에 들어가 진료했고, 지금 홍진을 앓고 있는 왕세자를 위해서도 교령(敎令)을 받들고 들어갔다는 소문의 주인공이었다.³⁹⁾ 마침 이러한

도 하다.

34) 書候綺疹已經。(1786.3.20)

35) 朝取嶺儒治紅疹方，以塗抹之。(1786.4.5)

36) 送藥丸九質于明局，書訂爲太乙神明丹。聞近日人多服之以防輪行時症云。(1786.4.21)

37) 紅疹入上下二廊。(1786.4.13)

38) 晏晡始有疹漸而癩。(1786.5.4)

39) ○聞西門外有姓禹醫，能神治產痘疹三症。有疹之家，并問症而來，用其藥輒效。有必死之疹，每

정보를 접한 유만주는 그때까지 알고 지내던 의원들을 마다하고, 환주의 홍진 증세를 발견한 다음 날 곧장 우 의원을 찾아가게 된다.

유만주는 5월 5일 아침, 서성(西城)으로 나가 ‘홍진을 고치는 것으로 당대에 명성이 성대한’ 우 의원을 방문해 환주의 증세에 대해 물었다. 그의 처방은 승마갈근탕(升麻葛根湯)에 총백(蔥白: 파의 밑동)을 넣어 쓰라는 것이었는데,⁴⁰⁾ 유만주는 1775년 여름에 홍진 진단을 받아 유사한 약을 복용한 적이 있었으므로⁴¹⁾ 이 처방이 좀 평범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한편 우 의원의 처방을 받아 집에 돌아온 그는 갑아와 진아 두 딸에게도 홍진 증세가 있음을 보게 되었다.⁴²⁾ 홍역의 감염력을 실감하게 하는 장면이다.

이튿날인 5월 6일 아침, 이번에는 조 의원을 찾아가 홍진 증상을 의논했다. 조 의원은 가미승갈탕(加味升葛湯)이라 하여 승마갈근탕에 약간의 약재를 더한 처방을 내려 주었고, 3세의 유아인 진아에게는 별도로 화총소차(花蔥小茶: 꽃고비 차. 기침 등에 효험이 있음)를 처방했다. 또한 홍진에 뒤따르는 증세 중 하나인 설사를 치료하기 위한 처방으로 황금작약탕(黃芩芍藥湯)도 알려 주었다. 유만주는 조 의원의 자상한 처방에 대체로 만족했지만 만전을 기하기 위해 우 의원을 다시 방문했다. 그러나 그가 자리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발길을 돌려 명동 약국으로 가서 의원의 처방에 준하는 약을 의뢰하고 조제를 감독하였다.⁴³⁾

5월 7일, 유만주는 전날 만나지 못한 우 의원을 보기 위해 아침에 또 서성으로 나갔다. 이번에는 한참을 기다렸다가 그를 만날 수 있었다. 홍진 증세에 대해 물으니 가미승갈탕을 쓰라고 하는데 전날 조 의원에게 받은 처방과 대체로 같았다. 진아에 대해서는 찹쌀 끓인 물에다 갈총소차(葛蔥小茶)를 달여 쓰라는 처방을 냈다. 처방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조 의원에게 들러 약을 의논하는 것을 보면,⁴⁴⁾ 유만주는 우 의원에 대해 유명하기는 하나 아직 신뢰하

日用石膏八錢，連三日，乃回死爲生。審若是則亦神矣。凡出疹藥，皆二黃紫胡石膏之屬，而不用安神無價諸料。先是宜嬪成氏疹命入侍議，今春宮之疹，又奉教入云。(1786.5.3)

40) 朝西出尋見醫禹，禹以治疹有盛名于當世者也。問院令用升麻葛根湯入蔥白。(1786.5.5)

41) ○症始知爲輪行之疹，夕服加味升葛湯。(1775.6.9)

42) 里，辰二女俱有疹漸。(1786.5.5)

43) 朝之水西，慰醫趙墮馬，仍議疹症，更書加味升葛湯。又問辰疹之用，書花蔥小茶方，繼書黃芩芍藥湯方，以治疹後之病也，乃西出未遇醫禹，進向明局監製二藥，取金葛等四料。(1786.5.6)

44) 朝又西出，待見醫禹，問疹，令用加味升葛湯，與趙方大同。辰疹亦令用葛蔥小茶，以糯米煎水。

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듯하다.

수서에서 조 의원을 방문한 유만주는 인근에 거주하는 종숙부(從叔父) 유한갈(兪漢葛, 1722~1795)을 찾아 뵙고 환주의 홍역을 돌보는 상황에 대해 여쭙었다. 수서 종숙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유한갈은 의원과 약국을 분주히 돌아다니는 유만주의 행태를 향한 약간의 질책을 담아 ‘약을 쓰거나 의원을 찾아갈 필요가 없고 그저 안정을 취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되레 지리하고 잡다하게 처방을 의논하니 도대체 듣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 것만 못하며 그만뒀어 보게 좋겠다’는 견해를 표했다.⁴⁵⁾

집으로 돌아온 유만주는 환주가 처방받은 승갈탕(升葛湯)을 복용했는지 확인한 후 지인인 장서가 민경숙(閔景淑)에게 편지를 써서 『삼재도회』(三才圖會)의 인물(人物)과 화목(花木) 권을 좀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환주에게 그림책이라도 보여 주어 적적함을 덜어주려는 것이었다. 민경숙이 『삼재도회』 대신 보내 온 『묵환』(墨幻)이라는 2책의 서화첩을 펼쳐 윤씨와 정씨, 심씨 등의 그림이 수록돼 있는 것을 훑은 후, 어린 딸 진아를 보니 몹시 아파하고 있었다.⁴⁶⁾

5월 8일, 환주의 발반이 비로소 온몸에 퍼졌다.⁴⁷⁾ 홍역을 익숙히 경험한 세대의 증언에 따르면 이것은 좋은 징후에 해당된다. 고열 때문에 꽃이 솟는 것을 발반이라 하는데, 처음 이마와 볼에 나던 꽃이 온몸으로 퍼졌다가 완전히 스러지기까지는 이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 과정이 순탄히 진행된다면 위기는 일단 넘기는 셈이 된다. 반면 발반이 잘 안 되는 것은 나쁜 징후로서 폐렴으로 진행됨을 의미했다.⁴⁸⁾ 환주는 증세가 시작된지 사나흘만에 발반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며 이제 쾌유를 기대할 수 있었다.

환주가 위기를 넘긴 다음날, 유만주는 조 의원을 오게 하여 세 아이의 홍진 증세를 진찰하게 했다. 의원은 환주와 진아가 거의 다 나았고 갑아는 아직 덜 나았다고 했지만⁴⁹⁾ 대체로 무사히 지나가는 분위기였다.

還歷醫趙議藥.(1786.5.7)

45) 進候從叔父, 教母須用藥尋醫, 止可安靜以待, 還議歧議雜方, 都不如不聽而不用, 試可停之.(1786.5.7)

46) ○皖又服升葛湯. ○書于臺, 要示『圖會』人物花木卷, 爲皖消寂也. 送來『墨幻』二冊, 是余曾所閱尹氏、鄭氏、沈氏之畫, 李氏之書也. ○辰女痛劇.(1786.5.7)

47) 皖疹始遍體.(1786.5.8)

48) 유중호, 앞의 글, 23면.

5월 10일, 아직 증상이 남은 갑아에게 석수(石水) 미음을 먹이고, 밝은 보라색 종이 한 폭을 주었다. 그리고 환주에게도 진한 노랑색 종이 한 폭을 주었다.⁵⁰⁾ 아픈 아이들을 위로하려는 선물이었던 듯 하다.

5월 11일, 유만주는 다시 서성으로 나가 우 의원을 만났다. 홍진을 치른 환주에게 염진증(厭進症: 식욕부진), 오한, 눈의 쓰라림 등 여러 증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 의원은 열이 몸 안에 숨어 있어 수용되지도 소통되지도 않아서라고 하며 사물탕(四物湯) 처방을 냈고, 진아가 복용할 소련교음(小連翹飲: 연교로 만든 약. 통증 완화, 이뇨작용이 있음) 처방도 냈다.⁵¹⁾

한편 처방을 받아 나오던 유만주는 얼마 전 홍진을 순탄히 치른 것으로 알려진 왕세자에게 홍진 후유증에 해당하는 환후가 있다는 뜻밖의 소식을 접했다. 이에 우 의원의 진료에 의구심을 갖게 된 그는 조 의원을 방문하여 검증하고자 했으나 그를 만나지 못하고, 근처에 사는 수서 종백 유산주(兪山柱)에게 들렀다. 앞서 유만주에게 ‘의원과 약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조용히 지켜보며 기다리라’는 말을 해 주었던 종숙부 유한갈의 맏아들인 유산주는 의학지식이 해박한 편이었다. 유만주는 그의 조언에 따라, 우 의원이 처방한 사물탕을 쓰지 않기로 했으며⁵²⁾ 집으로 돌아와서는 더 오래 아픈 갑아를 위로하기 위해 먹을 넣었던 초록색 감을 또 선물해 주었다.⁵³⁾ 이날 늦게 왕세자가 숨졌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더 이상 우 의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5월 13일, 홍진을 무사히 치른 아이들이 처음으로 흰죽을 먹기 시작했다. 이때 오뉴월 더위에 방문을 열어 놓은 것을 본 유만주는 무엇보다 찬바람과 음식을 조심해야 한다며 주의를 주었다.⁵⁴⁾

홍진의 후유증을 근심하던 유만주는 5월 15일 동리의 상제(喪制)를 조문하러 간 자리에서 양약(涼藥: 찬 성질의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정보를 얻었다. 양약을 쓰지 않으면 홍진을 치르고 몇 달 뒤에 설사와 횡배, 구창(口瘡), 안질(眼疾) 등 여러 잡다한 증세가 나타나게 되며, 양약으로는 장류수(長流水: 늘

49) 醫趙至, 見三疹, 云院 辰消, 甲則未.(1786.5.9)

50) 甲女朝服石水米飲, 賜紫明牋 一幅, 賜院深黃牋 一幅.(1786.5.10)

51) 朝西出見醫禹, 問院厭進惡寒眼苦諸症, 便說熱隱于裏, 不容不疎, 出四物湯方. 又出小連翹飲, 俾辰女服.(1786.5.11)

52) 始恭聞春邸有愆候, 過趙未遇, 歷議禹藥于從伯, 定以不用.(1786.5.11)

53) 貢墨綠匣賜甲.(1786.5.11)

54) 經疹諸兒始自粥或開戶, 以可慎者風寒飲食, 而乃以不戒致咎.(1786.5.13)

흐르는 물)를 펄펄 끓여 복용하는 것만 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⁵⁵⁾

이튿날인 5월 16일, 유만주는 의원 장덕해를 찾았다. 홍진을 겪은 뒤에 반드시 양약을 써야 하는지 의논하기 위해서였다. 장 의원은 우선 안신환(安神丸)을 쓰는 게 좋겠다고 했고, 추후 약속을 잡아 만나기로 했다.⁵⁶⁾ 며칠 뒤 장 의원은 약속대로 방문하여 유만주 모친의 환후를 진찰하고 익위순기탕(益胃順氣湯) 처방을 낸 후, 환주의 홍진 증상을 살폈다. 그는 열이 아직 다 내리지 않았다고 하며 안신환 세 알을 더 써야 한다고 알려 주었다.⁵⁷⁾

장 의원의 처방을 받은 후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환주와 갑아, 진아가 후유증 없이 무사히 홍역을 치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4월 13일에 감염되었던 유만주네 행랑채의 한 어린이는, 장 의원이 방문한 다음 날인 5월 25일에 홍진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마침 그 다음 날은 구환의 생모 해주 오씨의 기일이었다. 유만주는 왕세자의 공제(公除: 국상에서 조의를 표하는 기간)가 막 끝난 시기인데다 한집에 살던 어린이가 홍역으로 죽은 상황에서 아내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예에 맞는 일인지 잘 알 수가 없어 『예의유집』(禮疑類輯)을 찾아 보았다.⁵⁸⁾ 그는 이튿날인 5월 26일 아들 구환과 단둘이 사당에 가 절을 하는 것으로 아내의 제사를 대신했다.⁵⁹⁾ 이날 이후 이 집의 아이들은 더이상 홍역을 앓지 않았다.

이처럼 유만주는 의료 지식을 총동원하고 의료인을 만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인 결과 홍역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내는 데 성공했다. 게다가 그는 ‘온 정신을 혼돈과 황폐에 몰아넣고 새벽이 오는 걸 두려워하게 만들던⁶⁰⁾ 우울증으로부터도 어느덧 빠져나와 있었다. 역설적으로, 홍역에 감염된 ‘이지러진 대지’는 유만주에게 그 자신이 일개의 ‘나’가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타인들에게 연결된 존재임을 환기시켜, 마음의 땅이 무너지지 않도록 버티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 이처럼 그는 이지러진 대지에서 무언가 해낼 수 있다고 했던 자신의

55) 朝慰洞制, 說疹後不服涼藥, 則經累朔後, 必發痢蛔口瘡眼疾等諸雜症, 涼藥洵不可不用, 而涼藥無如長流, 長流必熱滾一番, 分服數碗, 則永無後頭。(1786.5.15)

56) 歷醫張之寓, 復回而窺見, 議疹後不得不用涼藥, 如安神之屬可用云. 約日來相見。(1786.5.16)

57) 醫張至. 上診慈候, 出益胃順氣湯方. 診議院疹, 熱尚未盡清, 宜增用安神三丸。(1786.5.24)

58) 以廊有疹後天化, 議停翌祀, 試放『禮類』。(1786.5.25)

59) ○借久拜廟。(1786.5.26)

60) ○匪精神以混荒, 悵愴夜之易晨. 온 정신이 혼돈과 황폐에 둘러싸여 긴 밤이 지나 새벽이 수 이 음을 서글퍼한다.(1786.1.24)

말을 실천해 보인 셈이다.

③ 인근 친인척의 상황

경제적으로 취약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더 빨리 감염되고 더 많이 희생된다는 점을, 유만주의 집 한 군데에서 홍역을 겪은 과정을 통해 알 수 있었다. 행랑사람의 아이는 홍역으로 목숨을 잃었지만 환주와 갑아, 진이는 의원과 약을 찾아 동분서주하며 보살핀 유만주의 노력에 힘입어 무사히 살아남았던 것이다.



<그림 1> ① 유만주의 창동 집(중구 남창동) ② 유준주의 낙동 집(중구 충무로) ③ 김이중의 도저동 집(용산구 동자동) ④ 유산주의 수서 집(중구 남대문로) 김이중의 집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대문 안이다.

한편 유만주의 집 인근에는 경제적인 차이가 나는 여러 친척집들이 있었다. 앞에서 두어 번 언급된 수서의 종백 유산주의 집은 그 부친인 유한같이 1786년 3월까지 나주목사에 재임했기에 유만주의 집에 비해 훨씬 넉넉한 편이었고, 낙동(駱洞)의 종백 유준주(兪駿柱)의 경우 월성위(月城尉) 김한신(金漢薰) 집안과 사돈을 맺을 정도의 월등한 재력이 있었다. 유만주의 집

까지 하여 이 세 집은 승례문에서 멀지 않은 사대문 안에 근거지를 두고 있었다. 반면 유만주의 고종사촌인 김이중, 김이홍 형제는 승례문 밖 도저동(桃渚洞: 용산구 동자동)에 집을 얻어 살고 있었다. 김이중 형제는 일찍 부모를 잃은 후 외삼촌인 유한준의 보살핌을 받아 자라났고, 1786년까지 극빈의 처지에서 유만주가의 경제적 도움에 의지하고 있었다. 같은 서울에서 유만주의 친인척들이 감염병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있었을지 간단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가장 부유한 유준주의 낙동 집의 경우, 이 집의 구성원들이 홍역과 관련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점이 눈길을 끈다. 이는 경제력으로 감염병을 아예 차단하는 예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김노경(金魯敬)과 혼인하여 예산의 경주김씨 종택으로 가 있었던 유준주의 외동딸이 1786년 5월 유만주의 집에서 멀지 않은 어떤 장소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홍역의 유행과 일정한 관련을 갖는 듯하다. 이때 김노경의 아내인 기계 유씨는 출산을 앞두고 친정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으며, 5월 18일 유만주는 종형제인 유평주와 함께 동리의 아래쪽으로 내려가 자신의 종질녀 기계 유씨가 머물고 있는 집을 방문했다.⁶¹⁾ 이 집이 기계 유씨의 친정 낙동이 아닌 유만주 동네의 아랫마을에 있는 점이 의문을 자아내는데, 아마도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산모의 안전을 위해 별도로 얻어 준 장소가 아닌가 한다. 유준주의 외아들이자 산모의 남동생인 유계환(俞繼煥)이 1785년에 관례를 한 10대 중반의 소년이었으니,⁶²⁾ 그가 홍역을 치르지 않았다면 감염원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로부터 보름쯤 지난 1786년 6월 4일 아침, ‘전날 밤 해시 정각에 유준주의 외동딸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은 유만주는 유준주의 집을 방문해 외손자 얻은 것을 축하했다.⁶³⁾ 감염병이 잦아든 이후 기계 유씨는 신생아 김정희(金正喜)를 데리고 친정에 들어가 아들이 백일을 맞을 무렵까지 산후조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⁶⁴⁾

이처럼 유준주의 집이 홍역의 공포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던 반면, 유만주

61) 偕平之洞下, 問從伯愛出寓.(1786.5.18)

62) ○值參祖廟薦花之享, 雲水北庭觀繼煥三加之禮, 蘭祖爲賓.(1785.3.15)

63) 朝聞從伯愛始產, 產男子兒, 遂如上之上, 賀產, 產于先夜亥正云.(1786.6.4)

64) 김하라, 『통원(通園) 유만주(俞晩柱)의 한글 사용에 대한 일고(一考)』, 『국문학연구』 제26호, 국문학회, 2012.

의 고종사촌형 김이중 집의 경우는 상황이 꽤 달랐다. 유만주의 두 딸에게 홍진 증세가 나타난 다음 날인 5월 6일, 김이중의 친동생인 김이흥은 유만주를 찾아와 홍진에 대한 근심이 몹시 심해 장차 의원을 만나 약을 의논하고자 한다고 이야기했다.⁶⁵⁾ 그러나 이들에게는 의원을 만나 약을 처방받을 경제력이 없었다. 이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유만주는 홍진 치료약의 재료로 마련해 온 말린 칩과 모과를 각각 1냥씩 털어서 김이중의 집으로 보내 주었고⁶⁶⁾ 그 다음 날은 문병을 갔는데 이미 두 사람이 홍역에 감염되어 있었다.⁶⁷⁾ 5월 14일에 다시 문병을 갔을 때 김이중이 다른 병인 핵증(核症: 단단한 멍울이 생기는 병증)을 앓고 있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 집의 홍역 환자는 틀림없이 김이중의 자녀들이었을 것이다. 당시 이 집에는 청소년기의 두 딸 및 아들 김백순(金伯淳)이 동거하고 있었으니 이들 중 둘이 감염됐을 터이나, 다행히도 모두 별다른 후유증 없이 홍역을 치렀다. 그런데 뜻밖에도 온향(溫鄉)으로 시집간 이 집 맏딸이 6월 11일에 사망했다는 소식이 도착했다.⁶⁸⁾ 안동 김씨인 이 양반가 여성이 홍역으로 사망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비슷한 나이로 같은 서울에서 자라난 여성으로 김정희의 모친이 된 기계 유씨와 여러모로 대조적인 상황인 점은 주목된다. 유만주는 부고를 들은 다음날 김이중을 찾아가 위로하고 ‘가난이 상형’(上刑: 극형)이라는 말을 되뇌인다.⁶⁹⁾ 질병과 가난의 공격에 속수무책이었던 김이중 가의 상황은 ‘조선의 양반에게 가난이란 사형 선고’라는 유만주의 평소 인식을 더욱 확고히 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수서 종백의 집을 살펴본다. 유한갈과 그의 아들 삼형제 유산주, 유문주, 유민주가 주축을 이룬 이 집은 경제적으로 넉넉했을 뿐 아니라 자손이 아주 많다는 점에서도 단출한 유만주의 집과 차이가 있었다. 수서 종백의 집에서는 홍역에 감염된 이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고, 오히려 의료 지식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이 집의 장남 유산주가 아이들의 홍역 치료를 위해 애쓰는 유만주에게 일정한 도움을 주고 있음이 간취된다. 유산주는 홍역에 걸린 환자를 치료 하라며 과갈소차(瓜葛小茶)의 처방을 알려 주었고,⁷⁰⁾ 그 다음 날에는 직접

65) 顧夜至, 說疹憂甚劇, 將見醫議藥.(1786.5.6)

66) 又取來乾葛, 木瓜各一兩, 分送其半于嶠下.(1786.5.7)

67) 于嶠問疹, 越見二疹卽還.(1786.5.8)

68) 昏間溫診, 內從伯女喪出昨寅.(1786.6.12)

69) 上嶠慰內從伯, 越入吊慰出. 議古有以貧爲上刑者矣.(1786.6.13)

와서 다시 매과소차(梅瓜小茶)의 처방을 전해 주었다.⁷¹⁾ 유산주는 그 뒤로도 찾아와 환주의 홍진 증세를 의논해 주었는데 그 부친 유한갈의 견해와 유사하게 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충고를 해 주었다. 이에 유만주는 8세 연상의 이재종형에게 짐짓 “예전에는 형님을 우리 집안의 주문공(周文公)이라 불렀는데, 이제는 우리 집안의 진월인(秦越人)이라 불러야겠구려”라고 치켜세우는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⁷²⁾ 그러나 주문공과 같은 수완과 능력, 편작과 같은 의술을 갖추고 집안을 돌보는 유산주가 있는 이 집에서도 홍역의 피해를 물설 틈 없이 방지할 수는 없었다. 유산주의 친동생인 유문주의 어린 아들 유규환(兪圭煥)이 홍진 후유증으로 사망했던 것이다.⁷³⁾ 이는 앞서 확인한 바 감염병으로 인한 고통이 병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상이하다는 점과 일견 모순되어 보인다. 그러나 부유한 유산주 가의 어린이가 홍역에 희생된 이 예는, 질병이 의지와 노력으로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다는, 또 다른 차원의 진실을 시사한다.

3. 1786년 서울의 공적 영역과 감염병의 영향

당연한 말이지만, 1786년 홍역의 영향력은 유만주의 집과 그 인근 마을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다. 조정에서는 4월 10일,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지금 홍역이 타오르듯 번지고 있다”고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표현하며 왕십리와 홍제원, 돌모루⁷⁴⁾ 등 서울 근교에 마련된 여단(厲壇)에서 여제(厲祭)를 올리라는 지시를 내렸다.⁷⁵⁾

유만주는 주로 조보(朝報)를 통해 감염병과 관련된 조정의 공적 방침과 대책을 접하며, 자신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일기에 옮겨 적었다. 위에 보이는

70) 製來瓜葛小茶，卽水西從伯之方也。(1786.5.7)

71) 水西從伯至，更定疹茶之方，名曰梅瓜小茶。(1786.5.8)

72) 水西從伯至，議院疹不必用藥，故說曾號爲家之周文公，今可號爲家之秦越人也。(1786.5.11)

73) 聞水西仲從之幼子圭煥，以疹餘不救。(1786.5.16)

74) 돌모루: 지금의 용산구 원효로97길 돌모루공원이 있는 곳으로, 당시 서울의 남쪽 교외 지역이다.

75) ○時疹痘熾行。教曰：“疹痘禳祭，雖無已例，先令該曹，略倣乙未事日，厲祭一兩日內，卜日受香。雖非節祭，先告城隍，自是應行之典，發告祭設行，仍設勵祭於各部中央處，外邑，一體設祭。”禮曹啓言：“四部勵祭，東則往十里，西則弘濟院，南則石渠，北則節祭處所外，別有厲壇，今當依此爲之。”(『조선왕조실록』 1786년 4월 10일조)

‘여제를 올리라’는 지시와 같은 것은 그의 관심사와는 거리가 멀었는데, 유만주가 홍역 유행과 관련해 처음으로 초록한 조보(朝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본(邸本)을 보았다. 홍역이 성행하고 있으니 중외(中外)의 양의(良醫)들에게 쓰임에 적합한 처방을 강구하라는 교령이 있었다.⁷⁶⁾(1786.4.24)

‘저본’은 조보 혹은 저보(邸報)와 통용되는 말인데, 승정원에서 정부의 공보 매체 내지는 관보로서 발행한 일종의 소식지이다. 특정한 날짜의 실록에 기록된 내용의 일부가 해당 일자와 하루나 이틀의 시간차를 두고 저본에서 본 것으로 『흠영』에 기록되고 있는 경향성을 찾을 수 있다. 4월 24일자의 『흠영』에 기록된 위의 내용도 『조선왕조실록』 4월 22일조에 보이는 교령의 내용을 수렴하고 있다.⁷⁷⁾

이처럼 유만주는 조정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를 통해 홍역과 관련된 공적 정보를 접하고 수용했는데, 그중 그가 지속적으로 주목한 것은 왕세자의 감염과 관련된 정보였다. 이와 관련해 유만주가 초록한 조보 및 건문의 내용을 살핌으로써, 공적 인물의 감염과 관련한 조정의 조치 및 그에 대한 사대부의 반응을 알아볼 수 있다.

‘동궁 저하’와 그의 생모 의빈 성씨의 홍진 발병 소식은 대궐에 입시하여 그들을 진료한 우 의원 같은 이들을 통해 민간에 전파되었던 듯하다. 소문을 들어 그런 상황을 알고 있던 유만주는 5월 4일에 조보를 보고 ‘동궁의 홍진 증세가 평순해졌다’고 일기에 적었다.⁷⁸⁾ 이에 앞서 그는 동궁의 홍진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대궐에 들어갔다는 우 의원에 대한 정보를 얻었던바, 5월 4일에 접한 동궁의 쾌차 소식은 그 다음날 환주의 홍진 치료를 위해 아침부터 우 의원을 찾아가게 한 계기가 되었을 터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5월 11일에 유만주가 본 조보는 ‘동궁 저하께 홍진 후유증이 있어 시약청을 설치하고 대신들로 하여금 종묘사직에 기도하게 했다’는

76) 見邸本, 以時疹熾行, 教講求中外良醫合用之方。(1786.4.24)

77) 教曰: “令廟堂, 遍諭京外儒士之業醫者, 恥其自銜胥靡之藏方者, 難於來告, 若有闕而未達之弊, 甚非朝家爲吾民勤諮之本意. 古有求逸書除官之事, 苟獲壽民良方, 行之有灼然之效, 其功豈比逸書之來獻乎?”(『조선왕조실록』 1786년 4월 22일조)

78) 見邸本議藥廳啓, 東宮疹候平順。(1786.5.4)

소식을 전했다.⁷⁹⁾ 그리고 바로 이날 오후에 왕세자가 홍서(薨逝)하고 말았다는 소식은 문자로 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서울의 사대부 사이에 전파됐다.

그 소식은 유만주에게 공적이고 사적인 방향으로 저마다 즉각적인 영향을 끼쳤다. 먼저 홍진을 앓는 아이들의 보호자인 개인의 입장에서 유만주는 더이상 우 의원을 찾아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다음으로 조선의 사대부 계급에 속한다는 공적인 입장에서 유만주는 왕세자 서거 소식을 들은 즉시 사대문 안에 거주하는 같은 계급 남성들과 더불어 곡반(哭班)에 참여했다. 그리고 공제(公除) 기간의 예에 따라 다음날의 고조모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⁸⁰⁾

애초에 그가 조보에 적힌 감염병 관련 내용을 수용하는 방식은 왕실의 귀인을 진료하는 명의(名醫)와 관련한 고급 정보라든가, 혹은 왕세자의 환후가 순탄히 회복됨을 축하하여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칭경정시(稱慶庭試)의 날짜와 같이⁸¹⁾ 자신의 이해관계에 수렴되는 개인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왕세자가 사망한 후 일개 거자인 유만주가 보인 행보나 반응은 사대부로서 조정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힘을 보태려는 것에 더 가까워 보인다. 유만주는 국상의 소식을 듣자마자 곡을 하기 위해 대궐 아래로 향했다. 가는 길에 유산주 등 수서의 여러 중형제들을 만나 함께 창덕궁 홍화문(弘化門) 밖에서 곡을 하고 돌아왔다. 이날 밤 그는 ‘우리나라 조정에서는 병년(丙年)의 운수가 몹시 험하여, 반드시 나라에 큰일이 생겼다. 예로부터 그랬다’라고 이 사건을 평가했다.⁸²⁾

그의 이 말은 홍역이 번지기 시작하던 3월 18일에 적었던 ‘병년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불길한 해’라는 감염병과 관련한 의원들의 전망과 묘하게 조응하고 있다. 다만 앞서의 ‘병’(丙)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병자호란이나 을병대기근의 ‘병’을 연상시키는 것이었다면, 이번의 ‘병’은 국본(國本)이라 일컬어지는 국가의 중요 인물이 사망했다는

79) 見小報, 以春邸疹後之症設侍藥廳, 遣大臣祈禱廟社。(1786.5.11)

80) 朝拜祖廟, 以停先高祖妣諱祀也。(1786.5.12)

81) 稱慶庭試定仲春中旬之始日, 而陳疹候平復之賀於今日云。(1786.5.7) 32세의 유만주는 아직 거자(擧子)의 처지였으므로 칭경정시와 같은 특별 과거시험이 실시된다는 것은 그가 챙겨야 할 정보였다.

82) 赴會闕下之哭, 遇借水西諸從, 進哭弘化門外卽還. 夜議國朝丙年甚險, 必國有大事, 從古以然。(1786.5.11)

점에서 10년 전 병신년(1776)을 환기시키는 것이었다. 병신년은 유만주가 일기를 쓴 지 2년째 되는 해로서, 그해 3월에 영조가 승하한 일을 그는 일기에 중요하게 적은 바 있다. ‘병년’의 의미에 대한 유만주의 이와 같은 인식은 그가 병오년의 홍역 유행에서 가장 큰일이자 결론에 해당하는 사건을 바로 문효세자(1782~1786)의 발병과 사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이후 유만주는 조정에서 내린 의주(儀注) 등을 신중히 확인하여 사대부로서 예에 어긋나지 않는 방식으로 애도를 표하기 위해 노력했다. 다음이 그런 예 중 하나다.

의주를 보았다. 종친과 문무백관은 자취의 기년복을 입는다. 공제(公除) 전에 는 흰 베로 지은 갓과 의대를 착용하고 공제 뒤에는 검은 갓과 띠를 착용한다. 이어서 저본을 보았다. 미시에 왕세자가 창경궁 별당에서 서거했다.⁸³⁾(1786.5.12)

그는 위와 같이 공제 기간 동안 백립(白笠)과 흰 의대를 착용해야 한다는 의주의 내용을 확인하고 집에 오자마자 수공업자에게 갓 본을 보내 백립 제작을 의뢰한 후 흰 띠를 띠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해질 무렵 그가 접한 ‘백립은 생원과 진사까지만 착용한다’라는⁸⁴⁾ 새로운 정보는 약간의 낭패감을 불러왔을 것도 같다. 왜냐하면 유만주는 아직 생원과 진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만주는 계속해서 저본의 내용을 주시하며 왕세자의 빈소가 대림 뒤에 요화당(瑤華堂)으로 옮겨진 것,⁸⁵⁾ 왕세자의 시호가 온효(溫孝), 양의(良懿), 둔선(敦宣)으로 논의되다가⁸⁶⁾ 다시 문효(文孝), 안효(安孝), 양효(良孝)로 바뀌게 된 것,⁸⁷⁾ 삼사에서 합계하여 왕세자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약원도제조 서명선(徐命善)의 삭출과 약의관 이정집(李廷楫)의 처벌을 요청한 것⁸⁸⁾ 등을 밝혀 적었다.

특히 왕세자의 죽음이 억울한 의료사고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었으며,

83) 見儀注, 宗親文武百官齊衰墓年. 公除前, 白布帽 笠衣帶; 公除後, 烏帽笠帶. 續見邸本, 未時王世子薨逝于昌慶宮之別堂.(1786.5.12)

84) 還先送笠樣, 遂帶素. 薄暮始知白笠止于生進.(1786.5.12)

85) 見邸本, 王世子大歿後, 靈床移奉于瑤華堂.(1786.5.14)

86) 邸本, 王世子議諡溫孝, 良懿, 敦宣.(1786.5.15)

87) 見小報, 溫孝世子諡改議文孝, 安孝, 良孝.(1786.5.23)

88) 三司合啓, 請藥院都提調徐命善削黜, 議藥醫官李廷楫等, 拿鞫嚴問, 夫施當律.(1786.5.23)

죄가 있는 의료인을 처벌해야 한다는 각계의 논의가 산발적으로 나오는 중에, 유만주 역시 한 사람의 유생(儒生)으로 그러한 견해 표명에 자신의 이름을 보탬으로써 홍역의 외중에 어린 후계자를 잃은 정조의 조정에 애도와 지지를 표했다.

저녁에 사학(四學)의 종이 서명을 받아 갔다. 그것으로 의원(醫員)을 성토할 것이라고 한다.⁸⁹⁾(1786.5.26)

유만주의 이 서명은 사부학당(四部學堂) 유생의 명의로 올린 상소문에 한 것으로, 왕세자를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내의원 의관 이정집, 이희인(李喜仁), 윤경행(尹敬行)을 즉시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84명의 유생 이름이 적힌 해당 상소문이 『승정원일기』 1786년 6월 9일 기사에 수록돼 있는데, 그 가운데 287번째로 유만주의 이름이 보인다.

III. 감염병의 시절에 배운 것

질병의 경험이 항용 그렇듯, 유만주가 견뎌낸 홍역의 시절에는 그것대로 유익한 점이 없지 않았다. 병오년 봄, 홍역이 왔을 당시 32세의 유만주는 몸과 마음이 공히 건강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런데 그는 감염병의 상황을 직면하며 일개의 연약한 ‘나’보다 더 절박하게 지켜야 할 타인들에게 눈을 돌렸고, 자신을 구성하는 ‘관계’들에 대한 책임감을 유지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마음자리를 온전히 지켜나가는 길을 배웠다. 이와 같은 배움은 세계와 일상을 대하는 그의 성실함에서 출발한다고 여겨지는 바, 결함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일상을 꾸준히 유지하려는 유만주의 태도는 무엇보다 하루의 일들을 꼼꼼히 기록하는 일기 쓰기의 습관을 통해 확인된다. 본고에서는 그에 힘입어 1786년 봄과 여름에 걸친 서울의 홍역 유행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한편 어떤 면에서 유만주의 일기는 일상을 지지하는 중요한 동력 그 자체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감염병의 시절에도 포기하지 않은 일상의

89) 見邸本, 公除辰初三刻. 暮學隸受名署而去, 以討醫云.(1786.5.26)

다른 면면이 그려져 있는 점도 더불어 일별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저물고 나서 중형제들과 함께 앞 언덕으로 올라가 연등을 구경했다. 연등의 성대함은 작년 초과일에 미치지 못했다. 잠깐 앉아 있는데 달그림자가 땅에 어린다. 회현동 언덕을 따라 내려왔다가 각도(閣道)를 지나 십자가(十字街: 종로 네거리)에서 장대에 걸린 연등을 보았다. 영성하게 만든 것이라 특별한 것은 없었다. 노니는 사람들이 붐비고 시끄러웠으나 쓸쓸한 분위기였다. 오직 달이 밝고 바람이 잠잠해 밤은 몹시 좋았다. 한참 배회하다가, 편을 나눠 솟대놀이 하는 걸 구경하고 밤이 깊어서야 돌아왔다.⁹⁰⁾(1786.4.8)

그는 가족을 보살피느라 분주한 중에도 초과일 연등놀이와 같은 연례행사에 가는 것을 빠뜨리지 않았다. 흥영이 도는 탓인지 예년보다 초라한 편이라고 실망감을 표했지만 좋은 달밤에 소박한 연등을 보는 것 역시 그의 소중한 일상을 구성하고 있었다. 또한 흥진 걱정으로부터 잠깐 눈을 돌리면 창밖은 봄기운이 가득해 햇빛이 환하고 잔디에 속잎이 돋는 시절이었다.⁹¹⁾

김상임(金相任)이 왔다. (….) 남묘(南廟)의 꽃을 보기로 하고 함께 나갔다. 시간은 벌써 저녁 무렵이었고 날씨는 간혹 바람이 불고 흐렸다. 성 밖의 꽃들을 돌아 보며 이런 말을 했다.

“천하의 좋은 책들을 다 보고, 천하의 좋은 경치를 다 보며, 천하의 좋은 사람들을 다 볼 수 있다면 이것은 인생에서 제일 즐거운 일일 테지요. 그런데 가장 바라기 어려운 것은, 천하의 좋은 사람을 다 보는 일일 겁니다. 모든 곳을 유람하는 것이 그다음으로 어려운 일이겠지요. 천하의 좋은 책을 다 보는 일은 그래도 바랄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마찬가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큰 복분(福分)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상상을 1/10이라도 이루기란 불가능하지요.”⁹²⁾(1786.3.28)

90) 既暮偕上前岡賞燈, 燈盛不及先年, 少坐月已影地, 下從會岡斷, 之閣道, 賞于十字燈竿, 既疏製亦無別. 略有遊人之闌闊, 而故事之蕭條, 甚矣. 惟月明風定, 夜則甚良, 徘徊稍久, 見分曹上竿之戲, 夜深而回.(1786.4.8)

91) 從經路上南城觀春意, 是莎生裡葉之時也, 眞春青日白.(1786.2.26)

92) ○逯至. (….) 訂南廟賞花偕出, 時已西夕斷, 曰或風陰, 歷嘗城外花. 議“看盡天下好書, 看盡天下好景, 看盡天下好人, 是人生第一樂事. 然最不可擬者, 看盡天下好人也. 遊覽之難盡, 又居其次, 至於看盡天下好書, 若可得以擬議, 而竟亦不可能, 除非大福力大智慧人, 遂此想不能十之一也.”(1786.3.28)

남대문 밖 관왕묘에서 벗과 함께 꽃을 보며 유만주는 일상의 꿈 세 가지를 떠올렸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책을 읽고 싶다는 그의 소망은 시대를 넘어 보편성을 가지며, 이지러진 세상에서 저마다의 일상을 지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사한다. 유만주는 동대문 버들에 봄빛이 완연하고(3월 16일), 세검정에 살구꽃이 활짝 피어 노을 같고 눈보라 같으며(3월 24일), 성북동 복사꽃이 농염하게 만발한(4월 5일) 풍경에 위로를 받고 일기를 썼다. 올해도 어김없이 피는 봄꽃의 풍경을 관조함으로써 유만주는 흔들림 없이 일상을 유지하며 자연의 리듬에 함께 할 수 있었다. 그렇게 풍경을 관조하는 가운데 오뉴월의 때 이른 낙엽을 보며 병든 인생에 대한 상념에 잠기기도 했다.

뒤뜰에 누런 잎이 땅에 가득 떨어져 있는 걸 보았다. 지금은 한여름인데 나뭇잎이 병들어 계절을 기다리지 않고 누렇게 물든 것이다. 부질없는 이 인생도 계절을 기다리지 않고 그치게 될지도 모른다. 돌아보고 텅 빈 마음을 가져야 하리라.⁹³⁾
(1786.5.17)

유만주는 감염병의 시절을 통과하며 다가오고 스쳐 가는 자연의 시간들을 텅 빈 마음으로 순순히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가을 전에 지는 일도 자연스런 순환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인간의 질병과 때 이른 죽음도 그런 대로 받아들여야 할 일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한편 유만주가 자신의 아이들을 홍역으로부터 지켜냄으로써 1786년 봄과 여름에 걸친 감염병의 시절을 무사히 넘겼던 것은, 당시 조선의 국왕이 5세의 왕세자를 홍역으로 잃은 일과 대조된다. 정조의 장남으로 축복받고 태어나 1784년에 왕세자로 책봉되었던 이순(李暉)은 홍역을 견뎌내지 못하고 짧은 생을 마감하며 ‘문효세자’라는 시호를 얻었던 것이다. ‘나라님이 약 없어 죽나’라는 속담도 있거니와 목숨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며, 질병과 죽음 앞에 인간은 근원적으로 평등할 수 밖에 없다는 또 다른 차원의 진실을 이로써 확인할 수 있다.

93) ○觀庭後黃葉滿地。時則仲夏也。木葉病則不待時而黃。浮生衰則不待期而休。可不反觀而曠之乎。(1786.5.17)

귀한 자식의 죽음이라는 개인적 비극 앞에서 정조가 취한 태도도 이런 운명적 진실을 받아들인 것에 가까웠던 듯하다. 앞서 문효세자의 죽음과 관련해 책임이 있는 의관의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을 언급했는데, 그에 대한 정조의 대답은 늘 “장수와 요사는 하늘에 달렸다. 어찌 의약과 관계가 있겠는가? 대죄하지 말라”⁹⁴⁾라는 처음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실제로 그는 책임이 있다고 거론된 어떤 의원도 처벌하지 않았다. 이러한 국왕의 노력을 기리며, 조정에서는 1786년의 홍역이 6월 29일에 비로소 종식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양지사(惠民署와 活人署)를 철수하였다. 홍진의 치료를 시작하면서부터 비로소 설치하여 임금이 5일마다 구료(救療)한 숫자를 써서 보고하라고 하였다. 문효(文孝)의 상을 당하게 되자 임금은 바야흐로 슬퍼하기에도 겨를이 없었으나 오히려 신직하기를 마지않았다. 이에 담당자가 감히 게을리하지 못했으므로 온전히 살려낸 자가 몹시 많았다. 이때에 이르러 홍진의 기운이 비로소 종식되었다.⁹⁵⁾

홍역의 시절을 넘긴 안도감도 잠시, 1786년 7월을 맞은 유만주에게는 지병을 가진 부모와 자식과 자기의 몸을 돌보느라 여전히 영일이 없는 나날이 이어졌다.

94) “壽夭在天，豈在醫藥？勿待罪。”(『조선왕조실록』 1786년 5월 11일조)

95) “撤兩醫司，痘疹救療，自始設，上命每五日以救療之數，修啓。及文孝喪，上方悲違不暇，而猶申飭未已，有司不敢懈，所全活者極多。至是，疹氣始息。”(『조선왕조실록』 1786년 6월 29일조)

참고문헌

1. 자료

- 유만주, 『흠영(欽英)』,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7.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main.do>)
유만주, 김하라 편역, 『일기를 쓰다』 1·2, 돌베개, 2021.

2. 단행본

- 박훈평, 『조선, 홍역을 앓다 - 조선후기 홍역치료의 역사』, 민속원, 2018.
_____, 『조선의인지』, 한국학술정보, 2012.
신동원, 『조선의약생활사』, 들녘, 2014.
유중호, 『시와 말과 사회사』, 서정시학, 2009.

3. 논문

- 김하라, 「유만주의 『흠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_____, 「통원(通園) 유만주(兪晩柱)의 한글 사용에 대한 일고(一考)」, 『국문학연구』 제26호, 국문학회, 2012, 200~242면.
송지칭 외, 「조선 홍역발생과 관련 의서 편찬관계 고찰-18, 19세기를 중심으로」, 『한국 의사학회지』 제31권 제2호, 한국 의사학회, 2018, 41~52면.

Infectious disease experience in *Heumyoung*
- Focusing on the measles epidemic in Seoul in 1786 -

Kim, Ha-ra

This thesis is an attempt to examine the past of infectious diseases here, living in the era of covid-19 Pandemic. To this end, I looked at the records of infectious diseases left in *Heumyoung*, Yu Man-ju's diary. Among them, from March to June 1786, when the measles epidemic in Seoul, Yu Man-ju and his surrounding people's disease-related experiences were reviewed. Measles, which was very popular at the time, was great enough to take the life of the eldest son of King Jeongjo. At this time, Yu Man-ju made every effort to protect his family, especially his younger brothers and children, and in the process, he mobilized his medical knowledge and moved to meet professional medical personnel. As a result, he succeeds in protecting his family from measles. In addition, Yu Jun-ju and Yu San-ju, wealthy relatives of Yu Man-ju, also protected their families from infectious diseases based on their knowledge and economic power. On the other hand, the situation of those who were in economically vulnerable situation was different. Yu Man-ju's cousin Kim I-jung was living in extreme poverty in the outskirts of Seoul. When the infectious disease spread, he was worried because he did not have the economic power to receive medical treatment. The man who had been living in the house of Yu Man-ju was infected and died shortly after the outbreak of measles. His case clearly shows that even though they live in the same house, they suffer from infectious diseases differently depending on their status and economic power, and that the socially weak are more vulnerable to infectious diseases. The records in this diary show that even if they encounter the same infectious disease, the pain and damage suffered by it differ according to the socio-economic status of those suffering the disease. And this pattern overlaps with the present, living in the era of infectious diseases. However, in 1786, King Jeongjo's efforts to protect the people from infectious diseases and the end of the infectious diseases as a result of them give us hope as well. Jeongjo

repressed the grief of losing his successor due to measles, encouraged the active operation of the national medical system, firmly rejected the profane discourse about punishing medical professionals who failed to treat the crown prince, and encouraged the state medical staff to focus on the treatment of the infected people. Eventually, on June 29, 1786, the Jeongjo's government declared an end to measles.

keywords: infectious diseases, measles, *Heumyoung*, Yu Man-ju, diary

| |
|--|
| 접수일자: 2021. 3. 31. 심사기간: 2021. 4. 1.~2021. 5. 10. 게재결정: 2021. 5. 10. |
|--|